금속

한국쓰리엠지회

계약직 고용 보장 대책 마련!
조합원 징계·고소 취하!

■ 발행인 : 박근서 지회장(011-617-3798) ■발행처 : 교육선전부 ■ 발행일 : 2009년 11월 11일(수) ■ 제 45호

16차 교섭, 조합안 43조까지 협의

지난 10일 나주공장에서 16차 교섭을 했다.

박근서 지회장은 나주공장 훅라인에서 있었던 김명후 팀장의 헐리우드 액션에 대해 "회사로부터 교육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성토했다. 또한 조합사무실 난동과 관련하여 "오늘 조합사무실에서 욕설까지 한 사람들 징계위원회 회부해 달라." 라고 질타했다.

오형탁 부지회장도 "오늘 나주공장 팀장들이 조합사무실 우르르 몰려와서 소동을 부렸다. 팀장들은 지회장 만나는데 그렇게 막무가네냐" 고 묻자 최용태 공장장은 " 그럴수도 있지요 " 라는 터무니없는 말을 했다.

이번 교섭에서도 우리 조합은 성의있는 자세로 수정안들을 제시만 사측은 지속적으로 재협의만을 요구해 원만한 교섭이 되지 못했다.

무차별적인 폭언과 욕설 퍼부어

최용태 공장장과 생산팀장들, 조합 사무실에서 난동

교섭이 예정된 10일, 13시경 교섭 준비로 분주한 가운데 갑자기 최용태 공장장과 생산팀장들이 조합 사무실로 난입해 무작정 지회장과 할 얘기가 있다면서 행패를 부렸다. 사전에 공문을 통한 조율이나 약속이 안 된 상황이었다.

이에 박근서 지회장은 품질학교에서 기다리라고 했다. 그러자 변용섭 팀장이 지회장과 할 얘기가 있다며 고성을 질렀다.

지난 파업국면에 조합원들이 회사 회의실로 찾아가 박원용본부장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할 때는 경찰까지 부르고 조합원들을 징계하고 고소로 일관하던 것과 너무도 대비되는 모습이다.

최용태 공장장 역시 이렇게 찾아와서 얘기할 수도 있지 않냐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 고성을 지르는 것에 대해 그러지 말 것을 얘기하는데 문영수 과장은 손으로 조합의 주병무 부장을 밀쳐내고 육두문자를 남발하며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팀장들이 그렇게 대단하냐는 우리 조합원들의 말에 변용섭 팀장은 "잘났어" 하고 큰소리를 쳤다.

우리 조합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우리 조합원들은 왜 조합간부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냐며 강력 항의했다.

조합사무실에 있던 우리 조합 간부들과 조합원들이 녹취와 동영상 촬영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14시 교섭을 앞두고 예정에도 없이 불쑥 조합사무실에 몰려와서 고성과 폭언, 그리고 욕설을 일삼는 것은 우리 조합원들로 하여금 폭력을 유발하기 위한 속셈이다.

문영수 과장 옆으로 우리 조합원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문영수 과장이 "뭘 쳐다봐. 나이도 어린 놈이 뭘 꼬라봐" 하면서 시비를 걸기에 이르렀다.

△ 나주 조합사무실에 난입 및 난동부린 자들

회사는 걸핏하면 조합과 조합원을 벌레보듯 업신여겨왔다. 그랬던 회사가 보여준 지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조합을 대표하는 지회장에게 폭언을 서슴없이 남발하고 조합사무실을 무슨 자기들 안방 들어오듯 와서 난동을 부린단 말인가?**

정당성도 없고, 기본적인 예의조차 상실한 회사의 행태는 철저히 준비된 각본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 그 배후에는 박00 본부장이 있다. 회사는 이러한 파국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박원용 본부장 교섭대표 자격 있는가?

최근 일련의 사태로 볼 때 노사관계를 총괄하고 있는 박원용 본부장이 과연 회사 교섭대표로서 자격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경영설명회라 미명아래 '무파업, 평화선언'을 강요하며 조합과 조합원을 협박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더니 이제는 막가고 있는 형국이다.

조합원들에 대한 막무가내 부서이동에 이어 폭력을 유발하는 행동으로 경찰을 시도 때도 없이 회사에 끌어들이고 있다.

한국쓰리엠 최초로 경찰이 회사 안까지 들어오게 한 설례를 만든 장본인은 바로 박원용 본부장이다. 노사간 대립을 야기한 상황이어야 진가를 제대로 발휘하고 인정받는다고 여기는 박본부장의 태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것을 그대로 답습해 지난 6일 김명후 팀장이 또 다시 회사 안으로 경찰을 끌어들였다.

지난 9일 최용태공장장이 보낸 사내메일에서 박근서 지회장이 **김명후 팀장의 신체 중요부위를 무릎으로 찼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 증거가 있다면 제시해보라.**

Hook Line 부서가 주말 특근과 관련해 조합원들이 가사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말특근을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김명후 팀장이 집단행동권 운운하며 협박하기에 대화를 하고자 찾아간 것이다.

김팀장은 대화를 청하는 박근서 지회장에게 나가라고 고함을 질렀다. 또한 박지회장을 향해 김팀장이 머리를 들이대고 밀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연출됐다. 이에 박지회장이 피한 것이다.

헌데 머리로 밀어붙인 사람이 오히려 자신을 때렸다고 경찰에 신고까지 한 것은 박본부장에게 보여줄 심산이었을 것이다.

회사는 노동조합 출범 이후 줄기차게 파트너로 인정한다고 했다. 헌데 김팀장은 지회장, 부지회장의 호칭도 없이 박근서씨, 박동민씨라며 망발을 일삼았고 경찰에 신고해 또 다시 **경찰을 회사로 끌어들였다**. 바로 박본부장에게 배운 행동 아닌가?

전임자라는 이유로 현장에 들어가지 못함은 말이 안 되는 처사다. 현재 현장 파트장들은 보안구역인 부서를 들어갈 때 ID카드만 대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현장 파트장이면 보안구역 부서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가? 원칙은 조합원에게만 해당되고 있다.

10일 최용태 공장장과 티장들의 조합 사무실 ,난동까지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김팀장 단독 기획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박본부장의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분명하다. 이런 경영진을 교섭대표라 할 수 있는가?

지난 임금협상에서도 경찰까지 끌어들이는 박본부장 태도 때문에 파업까지 악화됐지만 박근서 지회장이 서울 본사를 방문해 사장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조합은 진정으로 성실교섭을 원한다. 회사도 이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위와 같은 일련의 사태 관련자와 책임자를 징계하고 문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원만한 교섭 타결을 위해서도 한국쓰리엠에서 동고동락을 함께 해왔던 경영진이 직접 교섭에 나서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김명후 팀장 만행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나주공장 3공장에서는 김명후 팀장의 미팅이 수시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여성 조합원들과의 미팅에서는 노조탈퇴의 압력도 많다.

자기를 믿고 따르면 된다. 그러면 살 수 있다. 그러면서 이미 탈퇴하기로 한 여사원이 있다며 탈퇴 전에 실명까지 거론하기도 했다. 조끼만 벗으면 자기 권한으로 없는 휴가도 만들어서 쉴 수 있게 해준다고 했다. 가장인 여사원에게도 수능이 다는 아니다. 그 뒤가 중요하다. 탈퇴만 하면 살려 준다고 각서까지 써주겠다 등의 온갖 회유와 압력을 행사했다.

또한 김팀장은 3공장 여성조합원들에 더욱더 딴지를 걸고 있다. 타 부서가 아닌 3공장 내의 지원 보내기에 열을 올렸지만 여조합원들의 완강한 거부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겐 많은 고통이 따른다. 하지만 그 고통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고통이 주어질 뿐이다.

김팀장의 만행과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 조합이 우뚝 선 것이다. 이런 얕은 수작에 흔들릴 조합원들은 없다.

김팀장은 다이어리 강매, 부인 회사의 다단계 물건 판매 등으로 회사의 명예와 신뢰에 크나큰 상처를 남긴 바 있다. 회사 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더 나아가 회사 밖에 알려질까 부끄러울 지경이다.

계속되는 이러한 도발에 대해서 회사는 그저 함구하면서 조장할 뿐이다.

이런 사람이 리더의 자질이 있다면 아무나 리더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속이 텅 빈 껍데기일 뿐이다.